



정보사회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윤 영 민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면서
2. 급변하는 사회 환경
3.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3. 1 지식의 보존
 3. 2 교육 및 조사 활동의 지원
 3. 3 보편적 접근의 구현
 3. 4 공동체적 교류와 여가의 공간
4.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모든 사회 제도는 끊임없이 환경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그에 대응하면서 생존한다. 환경이 급변할 때 제도들은 위기에 처한다. 역사는 냉엄해서 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는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제도는 퇴장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공공도서관을 안팎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마살 맥루한은 정보기술이 인쇄 문명에 가져오는 충격을 인류역사에 있어 구어문화에서 쓰기문화로의 전환만큼이나 거대한 변화라고 지적하였으며, 적지 않은 사회비평가들이 그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바로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많은 지식인들의 생각이다.

톰슨(Thompson 1982)이라는 학자는 『도서관의 종말』이라는 요란한 제목의 저서에서 컴퓨터가 현재 서적 중심으로 된 인류사회의 기억을 대부분 대체할 것이며, 도서관은 공통이 갑자기 멸종되었듯이 조만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모든 예언은 틀리기 마련이다. 그의 예상과 달리 지난 20년 동안 세계 주요도시에는 여전히 거대한 도서관들이 건립되었고 공공도서관들은 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 관계자들은 이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발표자와 같은 외부인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의 하나인 도서관은 여전히 위기 속을 헤엄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처한 사회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급변하는 사회 환경

구미(歐美)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전개된 공공도서관에 관한 담론을 일별해 보면, 핵심적인 쟁점은 인쇄문화로부터 디지털문화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로 집약될 수 있다(Lancaster 1980; Thompson 1982; Birkerts 1994; Crawford and Gorman 1995; Nunberg 1995; Crawford 1996). 그러한 논의의 저변에는 공공도서관이라는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식을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분석으로 가져오자면 몇 가지 중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사회에 대해 매체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최근까지 문헌들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단순히 정보와 지식의 전달 매체가 인쇄물로부터 전자기기로 바뀌는 정도-그것만도 지대한 변화이겠지만-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협소하고 근시안적 시각이다. 정보사회는 디지털문화 외에도 지식(혹

은 학습) 사회, 노동의 유연성, 지구적 경제, 양성평등사회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가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소득과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초중등학교의 운영이 유연해짐에 따라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공공도서관수가 많이 증가해 2001년 현재 420개의 공공도서관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선진국의 대도시와 같은 발달된 공공도서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들은 기능적으로 자료의 수집과 보존, 수험생들의 공부방 그리고 계몽교육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검토하는데 있어 이러한 한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뒤에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전제로 하게 될 몇 가지 주요한 환경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정보사회는 탈(脫)인쇄문명의 시대가 될 것이다

탈인쇄문명은 종이책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인쇄문명의 퇴락을 의미한다. 즉,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전달에 있어 인쇄술이 지배적인 위치를 내놓고 대신에 다양한 출판 방식이 공존하게 된다는 말이다. 머지않아 전자책(e-book)은 많은 영역에서 종이책을 밀어낼 것이다. 그러나 매체 전환의 핵심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전자책이나 종이책이나 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출판사들은 출판하려고 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종이책, CD-ROM, WWW, 전자책, 주문출판(Print-On-Demand) 등 여러 가지 출판 방식 중 하나 혹은 몇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독자들은 특정 매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형태로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예컨대 오랜 시간 편안한 자세로 읽어야 하는 장편소설은 아무래도 종이책 형태가, 자주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 교과서는 전자책 형태가, 시간을 다투면서 출판해야 하는 학술저널은 WWW 형태가, 그리고 아동용 멀티미디어교육 자료나 특정 산업분야의 업체주소록은 CD-ROM 형태가 선호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출판사와 독자 모두는 다양한 매체의 이점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출판사와 독자 사이에 출현하게 될 그러한 다양한 형식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매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Bowcock 1999).

(2)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이 팽창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보기술 자체에 관한 지식의 증가를 수반함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것은 나아가 사회 모든 분야의 지식을 증가시킨다. 정보기술이란 정보를 생산, 처리, 그리고 전달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정확하게는 의미(혹은 메시지)와 무관한 신호(signal)를 가리키기 때문에 정보기술의 발달이 곧 한 사회의 의미(그런 뜻에서 정보나 지식)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혹은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처럼 신호의 바다 속에서 의미가 실종된다고까지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기술은 쌍방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나 지식의 생산에 대중적 참여를 증가시키게 된다. WWW상에 개인 홈페이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이 이를 반증한다. 더구나 정보기술은 인간에 의해서든 기계에 의해서든 일단 정보시스템에 투입된 자료로부터 의미(정보나 지식)의 생산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 최근 경영관리에 사용되는 KMS(지식관리시스템)이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보기술의 확산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의심하기 어렵다. 아마도 그 점이 정보기술이 여타 테크놀로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기도 할 것이다.

과연 지식의 팽창을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만약 종이책 형태를 고집한다면 모든 도서관들은 머지않아 재정과 공간의 위기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Malinconico and Jane 1996). 그 엄청난 서적, 잡지, 저널 들을 어떻게 구입하며, 설령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다 보관할 것인가? 게다가 종이책으로 전달되는 정보와 지식의 종류가 갈수록 제한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종이책만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은 시대착오적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3) 지식생산이 가속화되면 지식의 수명이 짧아진다

새로운 지식은 현재의 지식과 나란히 사이좋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대체한다. 조셉 슈페터(Joseph Schumpeter)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제 더 이상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경향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특별히 심각하지만, 다른 분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실용적 지식은 대부분 수명이 매우 짧게 된다.

지식의 수명이 짧아진 결과 평생교육 혹은 사회교육이 일상화되고, 학교교육을 마치고 직장에 나가는 선형적 인생과정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선형적 인생과정이 일반적이 된다. 실제로 요즈음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이 번창하고 있으며, 특수한 응용기술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에는 30~40대 연령층의 지원도 늘고 있다. 또한 야간에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수대학원 지원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계속 배우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이와 같은 '학습사회'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식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은 공공도서관의 자료 수집·보존 기능에 대한 함축성이 크다. 예컨대 분야마다 지식의 수명에는 차이가 있지만 특히 공학을 포함해서 실용적 분야의 지식의 수명이 가장 짧는데 그런 분야의 지식을 종이책의 형태로 수집·보관하는 일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보사회에서는 성찰성이 높아진다.

쇼샤나 주보프(Zuboff 1988)는 정보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록성과 추상성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공장과 사무실 모두에서 노동의 성격이 추상노동으로 바뀌게 되며, 노동 자체가 학습이 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과거에는 학교를 졸업한 - 즉, 학습을 끝낸 - 이후에 직업을 얻고 노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학습이 바로 노동이요, 노동이 바로 학습이 된다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덕분에 노동대상에 직접 노동을 가하는 임무는 점차 자동화 기계의 몫이 되고, 노동자는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에 나타난 상징적 기호 - 숫자와 문자 - 를 해독하고, 그것으로부터 작업과정을 분석하고 추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노동 그 자체가 학습이 된다는 말이다. 주보프는 이러한 작업을 성찰적 노동이라고 부른다.

노동의 성격이 이렇게 바뀌면 여성의 직업 참여가 급격히 증가한다. 더 이상 신체적 조건이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할 것임을 함축한다. 전업주부가 아닌 직장여성들에게는 즐거움을 위한 정보나 지식보다는 생존을 위한 정보와 지식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안소니 기든스(Giddens 1997)는 성찰성(reflexivity)은 노동 뿐 아니라 정보사회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사회운영이나 개인생활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어쩌면 정보사회가 지닌 진정한 의미는 지식의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니라 성찰성-지식의 적용-의 확대일 것이다.

예컨대 정보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식품영양학적 정보가 생산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자신의 섭생에 적용한다. 사람들은 이제 주는 대로 혹은 입맛대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음식이 자신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섭취한다. 사회적 수준에서도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여론조사를 통해 미리 국민들의 견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도 소비자들의 태도와 취향을 조사하여 상품의 기획에 반영하고, 상품광고를 내보내면 효과 조사를 통해 광고전략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행정기관이나 기업이 각종 사회 및 여론조사를 이용해 시민이나 소비자의 뜻이나 기호를 반영하는 일은 일상사가 되어 가고 있다.

성찰성의 증대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꼭 그 기회가 공공도서관에게 돌아가라는 법은 없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 방면에 앞서가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자신이 이 분야의 책임자임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5) 직업세계에 유연성(flexibility)이 높아진다.

정보기술은 경제활동에 있어 커다란 유연성을 가져온다. 정보기술 덕분에 기계가 신속하게 작업 내용을 전환할 수 있으니 과거와 달리 한 개의 생산라인으로부터 색상이나 기능이 다른 여러 종류



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반드시 노동자가 기계나 책상 앞에서 작업해야 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동시에 근무할 필요도 없게 된다.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유연해지니 소비자들은 더 이상 자기 개성을 누르면서 대량생산제품을 구매할 필요도 없다. 소비의 다양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상품의 다양성을 가지고 경쟁하게 만들며, 생산의 유연성은 경쟁력의 결정 요소가 된다(윤영민 외 2000).

대량생산의 산업사회에서는 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사회의 안정을 위해 노동력의 안정성이 중요했다. 물론 이는 숙련노동에만 해당되지만 고도산업사회의 중추인 중화학공업에서는 숙련노동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기간은 안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도 했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안정된 고용은 기업으로서는 무거운 부담이 되었다. 테크놀로지가 워낙 급속히 발전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숙련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든 본격적으로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편이 낫은 채로 퇴출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될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약에서는 평생고용 대신에 기간제 고용이 증가하고, '평생직장' 보다는 '평생직업'이 일반적이 되어 간다. 어쩌면 앞으로는 평생직업마저도 사치스러운 꿈이 되고, '평생 일'이 현실적 목표가 될지도 모른다. 즉, 무슨 일이든 일생동안 일을 하고 사는 것만도 쉽지 않게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자주 이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정보기술은 노동자들이 반드시 한 곳에서 모여서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적게 만든다. 그러나 원격근무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사실 원격근무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근무조건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노동통제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노동자로서는 동료들과 교분을 쌓기 어렵고,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고립이라는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원격근무가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것임에 틀림없다.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적어도 전체 노동력의 20% 정도는 원격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대량생산과 주문생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유연적 생산방식이 확산되면 산업구조상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생산과정에 있어 관료제보다는 시장에 더 의존하게 된다. 이는 금세기초 소위 제2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와는 반대 현상이다. 그 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료제라는 제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대기업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이라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기업들은 원료나 부품에 대한 정확한 시장정보를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납품업체와는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재고를 최소화하면서 적기에 납품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거대한 관료제가 오히려 짐이 된다. 이리하여 기업들은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 수직적 해체에 나서게 된다. 변덕스러운 시장의 신호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상호

독립적인 기업들이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생산하는 제품의 양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꾸더라도 종업원을 해고시키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부딪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공급받는 부품의 종류를 바꾸거나 심지어 납품업체 자체를 교체하는 일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가장 중대한 결과는 아마 높은 실업률일지도 모른다. 제레미 리프킨(Rifkin 1996)은 노동의 종말을 예고하기까지 한다. 정보기술에 의한 자동화가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면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기계가 대부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낳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없앤다. 정보기술은 경제의 모든 분야를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없애는 반면, 정보산업은 그 자체도 자동화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경제 전반의 자동화로 인한 고용절감분이 정보산업의 팽창으로 인한 고용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일자리 수의 감소-노동의 절약-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노동절약에 관해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간의 감축으로 일자리를 공유한다. 리프킨은 자동화 기계가 모든 분야와 산업에서 인간 노동을 대체해 감에 따라 선택은 두 가지로 좁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수의 고용과 다수의 실업이나 또는 노동 시간 단축과 일자리의 공유에 의한 다수의 고용이냐의 선택이다. 그는 전자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후자를 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구에서는 독일의 폭스바겐처럼 이미 주 30시간 노동을 채택하는 기업까지도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여가 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둘째, 비시장부문을 활성화시킨다. 즉,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공동체적 연대에 기반을 둔 활동을 촉진시킨다. 자원 활동은 사회 서비스, 건강, 교육과 연구, 예술, 종교, 법률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돈을 지불하고 용역을 맡기거나 완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동으로 해결하는 DIY(Do-It-Yourself) 활동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DIY 대상은 잔디 깎기, 컴퓨터나 자전거 조립, 주방시설 수리 등 매우 폭넓다. 정보화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고 여가 시간이 늘게 되면 DIY 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경향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직업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변수는 지구경제(global economy)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정보기술은 지구적 수준에서 실시간 거래(real-time transaction)를 가능하게 하고, 지구적 규모의 시장이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자본과 상품 시장은 물론이고 노동 시장까지도 지구적 규모에서 움직이게 된다(윤영민 1997).

지구경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민족국가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기업이나 노동자를 모두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노출시키고 있다. 그 결과 기업들은 국제적 수준의 운영을 하지 않고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으며, 때문에 기업들은 국제적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그 어느 때보다 절



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여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즐거움을 위한 지식보다 생존을 위한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지구경제로 인한 노동이동 결과 이미 우리나라에는 30만 명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도서관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3.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3.1 지식의 보존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역할 중의 하나는 출판물의 수집과 보존이다. 출판물의 검열을 위해 16세기 프랑스의 프랑수와 1세의 칙령으로 시작된 납본제도는 우여곡절을 거쳐 근대사회에서 뜻하지 않게 국가가 기록물의 보존주체로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여 년 전 검열을 위해 도입된 납본제도는 현재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그리고 ‘국회도서관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그 법률들에 따라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국회도서관이 각각 납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납본제도가 적합성을 잃어가고 있다. 인쇄문명에서는 인쇄물의 수집과 보존으로 문명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겠지만 탈인쇄문명의 시대에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는 없다. 특히 갈수록 지식의 출판이 비(非)인쇄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납본에 관한 현행 법제(法制)는 대폭 손질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쇄물 뿐 아니라 음반과 비디오물도 납본에 포함되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2000년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거기에는 지도, 슬라이드, 전산화 자료 중 테이프 및 디스크, 마이크로 형태물중 창작된 자료 등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단히 애매할 뿐 아니라 정보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참고로 프랑스에서 1992년과 1993년에 개정된 지적재산 관련 법령은 납본에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 출판, 배포에서 사용된 기술적 과정이 무엇이든, 인쇄, 그래픽, 사진으로 된 문서, 녹음물, 영상물, 멀티미디어물” 그리고 “매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어떤 물질적 매체를 통해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되는...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시스템과 기타 인공두뇌 매체(BNF 1998).”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업데이트된 납본리스트가 요구되며, 나아가 새로운 방식의 표현물들의 납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와 지식은 점점 사이버공간으로 집결될 것이고, 사이버공간은 거대한 '보편적 두뇌 (universal brain)' 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식사회에서 한 국가사회의 경쟁력은 그 보편적 두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에 의존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전자도서관, 사회과학데이터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보편적 두뇌의 관리자에 관한 원형 (prototype) 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더욱 진화된 형태의 관리체계가 요청된다.

우선 정부투자기관들에서 생산되는 연구생산물부터 표준화된 형태로 납본 받는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인쇄된 보고서가 아니라 디지털 형식의 보고서,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등을 한 기관이 수집하여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들의 연구보고서가 비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부분 인쇄된 보고서만을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관이라야 디지털형태의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런 기관들에서마저도 수천만 원을 들여 수집된 데이터들은 연구수행자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들이 그 기관을 떠나면 사라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직도 인쇄시대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국가적 과업을 어느 기관이 수행할 것인가? 발표자의 소견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납본도서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기관 중 정보과학 (information science)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데이터베이스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의 보존이라는 사명과 관련해서 지역공공도서관의 역할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납본방식으로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2 교육 및 조사 활동의 지원

정보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할 핵심적인 역할 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교육 및 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보사회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함을 의미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식의 수명이 짧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을 받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공공도서관은 물론이고 공교육기관들이 보유한 자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대에 뒤진 내용이 되어 버린다.

공공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사서들(혹은 정보전문가들)은 주민들의 학습활동에 자문해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공공도서관들은 어린이나 주부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들은 앞으로 직장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원격교육, 특히 온라인 원격교육이 확대되면서 공공도서관들이 스스로 원격교육의 장이 되겠다고 기꺼이 나서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제한된 예산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방안은 중복적으로 구입하는 자료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이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기관들의 협력체제에 있어 중추(中樞, hub)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체제는 자료의 협력을 넘어서 교육프로그램의 협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뉴욕시에 소재한 세 개의 공공도서관이 지역 내 학교들의 공교육을 지원하는 CLASP (Connecting Libraries and Schools Program)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생부터 중학교 2학년생까지의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들은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교사나 학부모 대상 워크숍, 관찰학습 등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참조: www.nypl.org/branch/services/clasp/clasp.html).

또한 공공도서관은 정보사회의 성찰성 증대에 따른 정보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중소기업이나 원격근무자들의 업무와 조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 5월에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개관한 SIBL (Science, Industry, Business Library)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의 리모델링과 내부 시설에만 1억 달러를 투입한 초현대식 시설에 3백대의 이용자용 컴퓨터, 1백만 권의 장서를 갖춘 이 도서관은 성인전용 도서관이며, 사서들과 정보전문가(information specialists)들이 이용자들의 면담에 응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교육 및 조사 활동의 지원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커다란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공공도서관이 공부방이나 서고(書庫)라는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해서는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시정부나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에 지출을 확대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했던 미국 내 여러 도시들의 자세로부터 시사받을 점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공공도서관을 경제발전의 성과를 재분배하거나 누리기 위한 복지기관이나 문화시설로 간주하기보다는 산업 활동의 토대가 되는 기간시설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은 공공도서관을 정부기관 중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가장 기대할만하고, 따라서 지출을 확대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3.3 보편적 접근의 구현

공공도서관은 선진산업사회에서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인 제도가 되어 왔다(Soter

1993; Wiley 1996). 한 사회의 공공도서관의 실정을 보면 그 사회가 정보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윤영민 2000).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은 정보사회에서도 동일한 사회적 사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Crawford and Gorman 1995; Nunberg 1995).

특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 역점을 두어야 할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이다. 현재 정보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3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하위 소득계층에 편입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은 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인구 밀집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부터 공공도서관의 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소수의 대형 공공도서관을 건축하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다수의 중소규모의 공공도서관들을 구축함으로써 도서관을 일상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전자정부의 확대로 실질적인 행정기능을 상실한 동사무소를 한시바삐 없애고 동네도서관(neighborhood library)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동네도서관은 공부방의 기능을 없애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적이거나 신문잡지를 비치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 오디오 도서(카세트테이프)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비치해야 할 것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PC, CCTV, 혹은 도서낭독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는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을 설립하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산을 분산시키지 않고 전용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장애인들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자료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공단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 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은 그들의 언어로 된 인쇄물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발표자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에 반드시 그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3. 4 공동체적 교류와 여가의 공간

근대 공공도서관은 초기부터 책이나 잡지, 신문을 읽는 곳(reading place)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gathering place)이기도 했다. 공공도서관은 책이나 신문을 읽고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이었다. 주민들에게는 도서관에 들러 책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에 못지않게 이웃들을 만나 세상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일은 커다란 기쁨이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전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정보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이는 특히 '고립'이라는 직업병을 가진 원격근무자들의 공동체적 욕구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이 강화하



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로 생각된다.

매력적인 문화 프로그램이나 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집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에 필요한 오락적 독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영화나 비디오를 상영하여 주민들이 건전하게 휴식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 가족 단위의 여가 활용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가족이 함께 가볍게 나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교육적 성격을 지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나오면서

발표자는 6년 전 지역공공도서관의 모델 개발에 관한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이미지와 위상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인은 아직도 그 지적이 상당부분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다소 길지만 그 서술을 인용하고자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시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부방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그 유용성을 입증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정책결정자나 납세자들에게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출 확대를 쉽게 설득할 수 없게 된다. 공공도서관의 활성화가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에게는 공공도서관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없던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비치게 된다. 자신의 유용성을 크게 입증해 오지 못한 제도가 갑작스럽게 기능을 확대하는 일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과거로부터 받은 이러한 불리한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제도나 기관으로서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문화, 교육,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172-173쪽).

지난 2년 동안 발표자는 거주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프로그램 안내장 하나 받은 적이 없다. 너무 소극적인 홍보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도서관 커뮤니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지역 정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윤영민. 1997. “세계화”. 정보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
- _____. 2000. 『사이버공간의 정치』. 한양대출판부.
- 윤영민, 이진, 장필화, 이상화. 2000. 『지식정보사회의 여성 직업의 지형찾기』. 대화출판사.
- Birkerts, Sven. 1994. *The Gutenberg Elegies: The Fate of Reading in an Electronic Age*. New York: Fawcett Columbine.
- BNF(Biblioth que nationale de France). 1998.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 Bowcock, Tim. 1999. “Library Futures: Striking the Balance.”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 Crawford, Walt. 1996. “Future Public Libraries: Integrating Technology with Traditional Service Values.” ALA 1996 Annual Conference, New York.
- Crawford, Walt and Michael Gorman. 1995.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Giddens, Anthony(김현옥 역). 1997.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한울.
- Lancaster, F. W. 1980. “Libraries and Librarians in an Age of Electronics.” *ALA Yearbook* 5. Pp. 9-19.
- Malinconico, S. Michael and Jane C. Warth. 1996. “Electronic Libraries: How Soon?” *Program*, vol.30, no.2. Pp. 133-148.
- Nunberg, Goeffrey. 1995. “The Places of Books in the Age of Electronic Reproduction,” in R. Howard Bloch and Carla Hesse, ed., *Future Libra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37.
- Rifkin, Jeremy(이영호 역). 1996. 『노동의 종말』. 민음사.
- Soter, Bernadette Dominique. 1993. *The Light of Learning: an Illustrated History of Los Angeles Public Library*. LA: Library Foundation of LA.
- Thompson, J. 1982. *The End of Libraries*. London: Clive Bingley.
- Wiley. 1996. Peter Booth. 1996. *A Free Libraries in this City: the Illustrated History of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San Francisco: Weldon Owen.
- Zuboff, Shosana. 1988. *In the Age of Smart Machine*. New York: Basic Books.